남구에 'KIA 양현종·김도영 야구 거리' 생기나

박용화 의원, 최근 구정질의 통해 역사·문화 인물 '관광 자원화' 제안 가수 김연자 모교·생가 순례길도 김병내 청장 "주민 수용성 등 검토"

최근 광주 남구에 KIA타이거즈 양현종·김도 영 선수를 테마로 한 특화거리 조성 의견이 제 안돼 최종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6일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 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 질문에서 박용화 의원은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역사·문화 인물을 관광 자원화하는 시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남구를 대표하는 인물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역사문화인물 기 념사업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최종 통과된 이 조례에는 남구를 빛낸 국내· 외 역사·문화 인물의 업적을 발굴·기록하고 기 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이를 토대로 박 의원은 야구선수 양현종(학

강초등학교 출신), 김도영(대성초등학교 출신),가수 김연자(서동 태생,양림동 학창 시절) 등을 대표 인물로 언급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야구 테마 거리' 및 '김연자 순례길' 조성을 제시했다.

양 선수는 2007년 KIA타이거즈의 입단 후 11 시즌 연속 100탈삼진, 구단 최다승, 최다 이닝 기 록을 보유하고 있다.

김 선수는 지난해 KBO MVP에 선정된 신예 스타로 관련 상품 판매 수익만 100억원을 넘겼다.

가수 김씨는 모교인 수피아여자고등학교와 생가 일대를 중심으로 팬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에 대해 김병내 남구청장은 "해당 인물들은 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들이다"며 "관련 콘텐츠 개발은 상징성과 지속 가능성, 주민 수용성 등을 검토한 뒤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주의 '박찬호 거리', 인천의 '류현진 거리' 등 사례를 참고해 양림동 근대문화자원 과의 조화 가능성, 교통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 겠다"며 "김연자 순례길 조성 역시 관광 자원으 로 의미가 커 전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 였다. /주성학기자



동구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가 지난 24일 광주 동구 푸른길 산수 문화마당에서 열려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몸풀기 체조를 하고 있다. 〈광주동구 제공〉

북구-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 '파트너십 데이'

오는 29일 한국광기술원서 지난 6월 체결 MOU 바탕 15개 기업 참여…판로 개척

광주 북구는 26일 "오는 29일 한국광기술원에서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Digital Economy Promotion Agency·이하 DEPA)과 'SMART'과 트너십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유명 AI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북구가 '광융 합무역촉진단' 파견을 통해 체결한 MOU에 따 라마련됐다

대국 디지털경제사회부 산하에 있는 DEP 모색하는장이될전망이다. A는 디지털경제 발전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특히 태국 DEPA 부회경을 위해 2017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관련 분 로디영 박사가 참석해 기야를 선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할 예정이라 북구는 실질곳이다. 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

앞서 북구는 태국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 록 21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으며 총 15개 기업을 선발했다.

당일에는 ▲DEPA 기관 소개 ▲태국 시장 진출 전략 공유 ▲기업 기술 발표 ▲네트워킹 교류등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며 기업들이 보유

한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태국 DEPA 부회장인 압비차르부트 로디영 박사가 참석해 기업들과 직접 대면 할 예정이라 북구는 실질적인 해외시장 진 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태국 DEPA와 체결한 MOU에 근거한 첫 번째 협력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의 유망한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광주동구랑페이 발행 한 달…28억 돌파 '호응'

56% 이상 판매…가맹 문의도 잇따라

광주 동구의 지역화폐 '동구랑페이'가 발행한 달 만에 전체 규모의 50% 넘게 판매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26일 동구에 따르면 광주동구랑페이 발행을 시작한 지난달 22일 1억5천만원 이상이 판매된 후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은 전체 규모(50억원) 의 56%가 넘는 28억원 이상을 돌파했다.

동구는 관심 비결로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 축제 기간 동구랑페이로 10만원 이상 결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원을 환급해 줬던 이벤 트를 꼽고 있다.

이로 인해 가맹점 등록에 대한 문의도 급증해 승인 심사 대기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모집 목표 (5천개)의 63% 수준인 3천160곳을 최근 달성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내년에는 광주동구랑페이가 정책자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동구랑페이'는 광주은행에서 구입 할 수 있는 선불형 지역화폐로 18% 할인된 금액 으로 판매되며 사용 기한은 구입일로부터 5년 이다. /안재영기자

광산구, 폭우 대응 '침수흔적도' 제작

광주 광산구가 기후 변화로 반복되는 집중 호 우와 이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침수흔 적도'를 제작한다.

26일 광산구에 따르면 침수흔적도는 침수 수위·시간 등 피해 당시의 흔적을 지도로 기록한 자료이며 원인 분석과 재해 대응 체계 개선에 활용가능하다.

앞서 광산구는 7월17-19일 누적 강수량 512mm에 이르는 '괴물 폭우'와 8월 초 극한 호우로 총 1천759개소(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 기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피해액은 157억원에 달했으며 어룡동과 삼도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광산구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침수 원인 파악과 기존 배수·대응 체계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보고이달 중전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옥근기자

서구, '제9회 경로당 놀이대회' 개최

등록번호: 2023-광주광산-0025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

내일 빛고을체육관서…32곳 참여 투호·고리던지기 등 4개 종목 대결

광주 서구는 26일 "오는 28일 빛고을 체육관에서 '제9회 경로당 놀이대회(어르신 올림픽)'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한도시 서구, 어르신의 삶이 곧 금메달입 니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대회는 지역사회 에서 노년의 시간을 이어가는 어르신들을 격려 하고 경로당 간 교류와 건강한 여가문화를 확산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선에는 지난 8월 예선과 동별 18강전을 거쳐 선발된 관내 32개 경로당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투호, 고리던지기, 스포츠스태킹, 한궁 등 4개 종목에서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며 경기 결과에 따라 금·은·동메달이 수여된다.

대출상품비교

대회장에는 ▲착한도시 서구 포토존 ▲추억의 커피다방 ▲경품추첨 등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되며 '경로당 라인댄스 프로그램' 어르신들의 식전 공연이 분위기를 돋울 예정이다.

서구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행사장 시설 점 검, 소화기 비치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해 대회 운 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대회는 어르신이 주 인공이 되는 축제로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공감 하는 '착한도시 서구'의 상징적인 행사"라며 "많 은 주민이 함께 응원하며 어르신들의 열정을 응 원해주시길바란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